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 지역산업육성에 올해 2200억 쓴다

한전·aT·농어촌공사 등 17곳 2174억 예산 편성...전년비 0.5%↑ 농업관련 사업 예산 비중 높아...지난해 육성 실적 전국 두번째 규모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올해 2200여억원에 달하는 지역산업 육성 예산을 투입해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

이전 기관들은 조성 9년 차인 나주 에너지밸리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지역기업과의 각종 공동연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특성상 농업 관련 사업이 많아, 이와 연계하는 기관들의 지역산업 육성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이전 공공기관 2023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공기업 17곳의 지역산업 육성 예산은 2174억원이다. 전년 집행한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2164억원) 대비 10억원(0.5%) 증가했다.

전국 혁신도시의 전체 지역산업 육성 예산이 지난해 1조 4318억원에서 올해 1조 2090억원으로

15.6% 감소한 것과는 달리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투입 예산은 늘었다.

지난해 지역산업 육성 실적 또한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658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전국 12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내놓는 지역산업 육성 예산 중 빛가람혁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산업 육성 예산이 전국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11.1%→2023년 15.1%→2024년 18.0%로 지난 3년간 연 평균 2.3%p씩 늘어났다.

올해 지역산업 육성 예산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내 최대규모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체 지역산업 육성 예산의 44.7%에 달하는 973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전의 투입 예산은 지난 2021년(1304억 5100만원)과 견줘 25.4% 줄었는데, 지역산업 육성 예

산이 정부 지원금, 도비 등 국비 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자체 부담금을 더해 만들어 지는 만큼, 총 부채 규모 200조원, 연 이자만 4조 4500억원에 달하고 있는 한전이 건축 재정 상태를 유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전은 올해 에너지밸리 산학협력 지원,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 에너지신기술연구원 공동연구 기자재 구축 등 12건의 지역산업 육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전에 이어 지역산업 육성 예산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aT(742억원·34.1%), 한국농어촌공사(374억원·17.2%) 등으로 집계됐다.

aT는 올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육성 지원자금',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 등 지역농식품, 수산물 수출업체 용자', '지역인재 청년 장학금', '청년인턴 채용', '광주전남 저소득 취약아동 대상 농산물 및 생필품 꾸러미 지원', '대학생 든든한기아침밥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지역 중소기업 대졸이자 감면을 위한 '동반성장 상상펀드'에 120억원, '재해예방계측사업'에 57억원 등 14개의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인도네시아 에너지기업과 신사업 추진

R&D 지원·협력 강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8-1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 등 현지 에너지기업들과 신기술·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9일 Barito 그룹과의 면담에서 한전의 해외 발전사업 역량을 홍보하고, 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Barito 그룹은 "현재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건설중인 발전사업의 파트너로서 양사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인도네시아 PLN 본사에서 PLN, 지멘스에너지와 공동으로 자바섬과 스마트 라섬을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설치

사업 등 전력분야 신기술·신사업 공동추진 MOU를 체결했다.

이날 김 사장은 한전의 우수한 기술력을 대표하는 사업인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기술' '자동검침(AMI)' '변전소 예방진단 시스템' 등을 소개하면서, 향후 신기술·신사업 진출을 위한 R&D 지원 및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 사장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2060년 Net Zero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도입 및 에너지 신기술과 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한전은 에너지 신사업 분야 해외사업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키즈라라와 저탄소 식생활·친환경 문화 확산 협약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10일 화순군 소재 어린이 테마파크인 '키즈라라'에서 키즈라라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양 사는 향후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으로 저탄소·친환경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최근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의 저탄

소 식생활 동참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aT는 지난 2021년부터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준진 aT 사장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aT의 임직원 및 가족들도 시설을 방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일손 부족 농가 돕기 등 '농산어촌 행복충전'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농번기를 맞아 나주시 영용마을에서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은 'KRC 행복충전단'을 꾸려 행복 키움, 행복 기쁨, 행복 나눔을 3대 핵심 가치로 삼고 ▲영농도움·재해복구 ▲농어촌 집고쳐주기 ▲김치 나누기 등 농산어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KRC 행복충전단' 40여명은 양파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농촌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양파 줄기 자르기, 양파 뽑기 등 양파 수확에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나주의 한 농가는 "수확철에도 일손이 없어막막



했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본인 일처럼 도와주셔서 양파 수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선희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은 "지역 농가를 위한 일손 돕기를 비롯해 농산어촌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농산물 소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소에너지연구소 구근호 교수팀 저장용 금속수소화물 설계 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수소에너지연구소 구근호 켄텍 교수 연구팀이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협력 사업 '메라넷'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메라넷은 '유로피안 그린 필'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첨단 기술 제품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며, EU 회원국 25개국을 포함한 세계 35개국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메라넷에서는 기후 변화 관련 연구 주제를 메라넷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컨소시엄을 공모하는 등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팀의 총 책임자인 구 교수는 이번 메라넷 과제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3년간 100만 유로(한화 14억7000만원)를

지원받고, 국내 연구 참여기업인 ㈜원일티엔아이와 독일 프라운호퍼 IFAM, 폴란드 AGH 대학교와 함께 수소 저장용 금속수소화물 설계 연구를 진행했다.

구근호 켄텍 교수는 "이번 메라넷 과제를 통해 유럽의 명문 연구소 및 대학과 함께 혁신적인 수소 저장 소재를 개발해, 국내 수소저장용금속 판매업체인 원일티엔아이에게 초격차 기술을 제공하고 켄텍을 세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